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활동]

알토란ERP 대표이사의 TF팀 참여

사회보험 적용징수 효율화 TF팀의 일원으로,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 제도의 기획과 설계를 참여하며 정책 실행과 시스템 구축에 기여

정책 추진 배경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부과 및 징수 기준이 상이하여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행정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

정책의 시행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https://si4n.nhis.or.kr/>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 목 사회보험 적용징수 효율화 TF 회의 참석 요청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효율화를 위한 TF 2차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일시: 05. 5. 18(수), 15:00~
- 회의장소: 정부중앙청사 별관 401호 소회의실
- 참석범위: 김용하(순천향대), 석재은(보사연), 심규범(건설사업연구원), 이명옥(알토란ERP), 이종희(인덕회계법인), 이호근(노사정위원회), 정연택(충남대), 신동면(경희대), 정홍원(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회의자료는 김용하 교수께서 취합하여 준비. 끝.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수신처: 회의참석자

담당자 행정관 장신* 전 결 비서관 김수*
e-mail: marath*****@hanmail.net

협조자

시행 차별시정위-199 (2005.5.17.) 접수 ()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정부중앙청사별관 604호/

전화 (02)733-8***(직통), 3703-3*** (교환) 전승 (02)722-0***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 목 사회보험 적용징수 효율화 TF 회의 참석 요청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효율화를 위한 TF 3차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일시: 05. 5. 30(월), 16:00~
- 회의장소: 정부중앙청사 별관 603호 회의실
- 참석범위: 김용하(순천향대), 석재은(보사연), 심규범(건설사업연구원), 이명옥(알토란ERP), 이종희(인덕회계법인), 이호근(노사정위원회), 정연택(충남대), 신동면(경희대), 정홍원(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김재용(국세청). 끝.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수신처: 회의참석자

담당자 행정관 장신* 전 결 비서관 김수*
e-mail: marath*****@hanmail.net

협조자

시행 차별시정위-199 (2005.5.25.) 접수 ()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정부중앙청사별관 604호/
전화 (02)733-8*** (직통), 3703-3*** (교환) 전송 (02)722-0***

[동아일보]

4대보험 통합안 이달중 대통령 보고

2006.08.17. 1면 종합

정연욱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16일 김용익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4대 보험의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대 보험의 부과 징수 기능을 일원화해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처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4대 보험 통합방안을 이달 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4대 보험이 통합될 경우 보험료는 전년도 과세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매달 같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4대 보험이 각각 다른 징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가입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동아일보]

국민연금 등 4대보험 2009년부터 통합징수

2006.09.25. 14면 사회

김상훈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2009년부터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험료 징수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 (가칭)을 설립하고, 올해 안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추진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4대 보험 통합 추진 방안’을 마련해 25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맡고있는 3곳의 업무를 재평가해 유사 및 중복 업무 인력을 우선적으로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단은 보험료 지출 등 수급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4대 사회보험 노조는 8월 중순 정부의 징수 일원화 방침이 알려진 뒤 수차례에 걸쳐 조직 통합에 반대해 왔으며 22일에는 ‘사회보험 졸속 통합 저지 공대위’를 출범시켰다. 이들 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통합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